

## 【서평】

### 연민수 『고대 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2014)

서보경(고려대 동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 연구교수)

#### I

연민수 선생은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저명한 연구자이다. 연 선생은 이미 『고대한일관계사』(1998)와 『고대한일교류사』(2003)라는 2권의 연구서를 낸 바 있다. 이 2권의 저서는 고대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 사안에 관한 일본학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 일본, 중국의 관계 사료를 비교, 검토하여 역사적 사실의 일치점을 추구해 나간 역저이다. 이 저서들은 해당 시기 연구자들에게 지침서가 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연구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도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계승하여 일본 고대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한반도 諸國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실제 교류 양상을 비교, 검토하여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또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연 선생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간행한 『역주 일본서기』(전3권, 2013)의 역주 작업을 주관하여 역주본을 마무리한 바 있어 이 책의 출간에 앞서 이미 그 실증적인 연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대의 한일관계 연구에 정열을 쏟아온 저자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찬사를 보내고자 한다.

평자에게는 연 선생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다. 처음으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심사를 받았을 때 연 선생에게 논문에 관한 평을 듣게 되었다. 평자의 당시 인식 수준에서는 선생의 고견을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기에, 이후에도 한 번 씩 그 때의 심사평을 되새겨 보곤 하였다. 그래서 인지 이후 선생의 글들을 자주 읽게 되었고 평자의 연구 진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제까지 선생의 글들을 학습하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감히 평을 한다고 생각하니 두렵기 그지없다.

#### II

연 선생의 『고대 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는 고대의 한반도 남부 제국에 대한 지배 또는 강한 영향력을 강조하는 역사인식이나 한국 고대 문화 수준의 우월성에 기초한 일방적 문화 전수를 언급하는 역사 해석에서 벗어나 양국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교섭과 이를 통한 양 지역의 정치, 교류사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자도 이 책을 단지 ‘고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교류’라는 측면만을 이해하기 위해 읽지 않았으며 올바른 ‘古代韓日關係史像’ 형성을 위해 일본 고대 문헌을 어떠한 시각에서 연구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을 견지하며 서평을 진행하려 한다.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머리말

1부 고대일본의 대한교류와 인식

- 제1장 고대일본의 가야관 형성과 변용
- 제2장 『일본서기』의 백제인식과 변국사상
- 제3장 고대일본의 고구려관
- 제4장 일본율령국가의 신라관의 형성과 실태
- 제5장 발해·일본의 교류와 상호인식-국서의 형식과 연기문제를 중심으로-
- 제6장 신공황후전설과 일본인의 대한관
- 제7장 니시키에에 투영된 신공황후전설과 한국사상

## 2부 백제·신라의 대일외교와 성격

- 제1장 왜계백제관료의 실체와 그 성격
- 제2장 왜로 이주한 백제인과 그 활동
- 제3장 일본 정창원의 백제유물과 그 역사적 성격
- 제4장 연오랑·세오녀전승을 통해 본 신라와 왜
- 제5장 신라의 대왜외교와 김춘추

## 3부 고대일본의 대한교류와 다원성

- 제1장 북구주호족의 대한교류와 다원성
- 제2장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 피장자와 그 성격
- 제3장 고대일본의 대재부의 기능과 신라문제
- 제4장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남방세계관
- 제5장 보국장군·본국왕과 금관국

## 보론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역사인식

- 제1장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 제2장 일본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체계와 민족·천황문제

이 저서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전개 양상을 고대의 한반도 제국에 대한 이른바 ‘蕃國觀’의 형성 문제부터 현재의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대한 인식 문제에 이르기까지 ‘인식’론에 초점을 맞추어 추적한 부분과 한국과 일본의 실제 교류의 성격과 그 교류의 다원적인 측면을 각 국(지역)의 교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서의 주요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지배층이 형성한 이른바 ‘일본관 中華思想’에 기초한 ‘신라 변국관’에 대한 비판이다. 중국 고대 중원왕조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의 세계관 내지 對外觀을 정립시켰다. 中國 즉 자신(華)과 주변 즉 四夷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이것이 소위 ‘華夷思想’의 요체이다. 이러한 ‘화이사상’에 입각한 중국적 세계 질서는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뒤섞여져 만들어진 하나의 이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 사료에만 입각하여 국제관계사를 논의할 때 주변국의 입장은 중국 중심의 대외관에 의해 매몰되어 버리므로 일방적인 사료에 근거한 연구만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고대 일본의 율령법과 문헌에 기재된 신라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변국관’에도 적용된다. 더구나 중화사상은 예제와 문화면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관계일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그런데 예제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양국의 관계를 분석하여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제국과 일본의

관계가 오히려 반대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판 중화사상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또 율령법과 『일본서기』 등의 관찬 사서에서 신라를 변, 번국이라 칭한 것은 신라에 대한 대항의식, 우월의식의 주장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인식과 일본이 지향하는 기대가 뒤섞여져 만들어진 하나의 이념이었지 실제 현실과 부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외교의례 기사 분석을 통해 명쾌하게 제시하였다.

둘째, 한반도 제국에 관한 굴절되고 왜곡된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일본서기』에 기재된 ‘神功皇后傳説’을 통해 논증하였다. 일본의 국가 의식이 고조된 시기인 8세기에 형성된 신라 번국관은 과거의 역사 서술에도 투영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를 쳐서 번국으로 만들었다는 ‘신공황후전설’이다. 저자는 ‘신공황후전설’이 8세기 일본율령국가의 신라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경쟁의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명시하고, 이후 시대에 ‘신공황후전설’이 활용된 사례를 통시대적으로 분석하여 전설의 변용 과정을 설명하였다.

셋째, 현재 검인정제도하의 일본역사교과서가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상을 대중의 의식 속으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서 집필한 『신편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추구하는 역사관을 천황 통치 하에서 유구한 역사를 영위해온 일본 민족의 불변성, 일본의 국익우선주의에 기초한 침략 논리를 방어의 논리로 포장한 침략사관, 그리고 전통문화존중을 통한 독선적 문화우월사관으로 등으로 정리하였다. 또 이러한 역사관에 대해 역사관의 자유와 역사왜곡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국중심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국사를 상대화하고 세계사의 일환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국제적 시야에서 인류의 공존과 평화를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은 ‘대외인식’이 단순히 인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이러한 왜곡의 틀 위에 기술된 사서가 후대 역사가들의 해석에 의해 다시금 하나의 ‘인식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 ‘인식론’이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 관계의 왜곡 발생의 기반이 되므로 사실과 인식이라는 측면을 구별하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역사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넷째, 한반도 제국과 일본의 정치사, 교섭사는 물론이고 문화교류사, 공무역과 사무역에 의한 경제교역사, 무력충돌에 의한 항쟁사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한반도 제국과 일본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주변국들과의 부단한 교류와 교섭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 남부 제국은 중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 지리적으로 떨어진 고구려도 백제, 신라 등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일본과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컨대 우호적인 기저를 유지한 백제와 일본의 교류는 백제에서 활동한 이른바 ‘왜계백제관료’의 실제 분석과 왜에서 활동한 백제인의 활동상을 쌍방향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교류의 증거품으로 일본 정창원의 백제 유물에 주목하였다. 또 신라와 일본의 교류는 고대 신라인의 일본열도 이주 전승 분석을 통해 신라와 왜의 교류의 역사를 설명하였고, 김춘추의 교섭 사례를 통해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외교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다섯째, 고대의 한반도 제국과 고대 일본의 교류가 가진 다원성 문제를 양 지역이 하나의 중앙 왕권으로 통합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통합 이전 시기는 北九州 지역의 호족과 영산강유역사회의 재지수장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북구주 지역의 호족은 ‘선진 문물’의 수용을 통해 특정 왕권에 구속되지 않는 형태로 대한교류를 지속했지만, 동방에 대한 영토적 통합에 대한 지향성 미비로 인해 북구주의 몰락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았다.

또 영산강유역사회의 '전방후원분'의 존재나 국제성을 띤 복합적인 문화현상은 백제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전 북구주 등 동아시아해역의 활발한 교류를 설명해주는 단서라고 평가하였다. 또 천황제율령국가 성립 이후에는 교류와 경계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공존할 수밖에 없었던 대재부의 기능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8~9세기 대외 교섭 기사의 분석을 통해 북구주에 위치한 대재부가 경쟁국 신라를 의식하고 만든 대외관사임을 명시하였다.

요컨대 이 저서는 번국관의 부정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의 실제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저서에 제시된 논점은 많다. 광개토태왕릉비에 내재된 고구려의 세계관 즉 고구려를 주변 제국의 패자로 두는 역사인식이나, 『남제서』 가라국전에 보이는 '보국장군·본국왕'은 가야 제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통교한 가라국이 대가야가 아닌 금관국이 본국의식을 표출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이 저서에서 이러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평자는 위의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 동감하며 이는 앞으로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성과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의도를 평자가 잘못 읽은 점이 있다면 후학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질책으로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학계에서도 보다 진전된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며 이 저서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